
칠레 학생운동과 잃어버린 30년

우석균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

I. 들어가면서

2010년 3월 11일 칠레에 세바스티안 피네라 정부가 들어섰다. 피노체트 군부 독재를 종식시킨 중도좌파 연합전선인 콘세르타시온(Concertación)의 20년 집권이 끝나고 우파 정부가 탄생했다는 점에서 국내외의 뜨거운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다. 필자는 2년 전 「칠레 대선: 칠레판 ‘명백한 운명’, 그리고 더 명백해진 칠레의 운명」이라는 글을 통해 그 의미를 분석했다. 필자는 피네라의 승리가 우파의 승리가 아니라 시장의 승리, 기업가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피노체트에서 콘세르타시온으로의 이행 자체가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세르히오 비야로보스 루미노트의 시각,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시각에 입각하여, 피네라의 승리가 그 정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즉, 콘세르타시온 체제의 배후에

서 실질적인 통치를 하던 시장(市場)이 피네라를 내세워 국가를 접수한 사실이 2010년 대선의 핵심 의미라는 주장이었다. 사실 당시 칠레에서도 콘세르타시온 정권에서 피네라 정권으로의 교체는 마름들이 물러나고 주인이 되돌아온 것이라는 기사가 있었으니, 필자가 지나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지금도 확신한다. 나아가 필자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재벌이 된 피네라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향후 칠레의 운명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진단했다.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계속되고 경제가 만물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계속되리라는 것이었다(우석균 2010).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필자가 신자유주의 체제가 천년만년 지속되리라고 믿은 것은 아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가 붕괴되지 않은 예가 없었으니, 소위 칠레의 기적 뒤에 깊게 드리워진 불평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언젠가 체제의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피네라 정권이 불과 집권 1년 만에 위기를 맞이하면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그 위기를 야기한 것은 세계 경제위기 같은 외부적 요인이나 국내 정치 요인이 아니었다. 2011년 4월 시작되어 연말까지 지속된 학생시위가 바로 그 위기의 진원지였다. 그래서 칠레 학생시위는 현재 칠레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칠레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이다. 필자가 또다시 칠레 사회를 들여다보는 글을 쓰게 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II. 2011년의 대장정¹⁾

2011년 칠레 학생시위는 센트랄대학에서 촉발되었다. 대학 측이 부동산 기업의 대학 운영 참여를 허용하는 정관 변경을 시도하자 이 대학 학생들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서면서 4월 4일부터 대학이 마비되었다. 일개 대학의 문제로 보이던 이 사건은 교육개혁 요구로 비화되었고, 칠레학생연맹(CONFECH: Confederación de Estudiantes de Chile)은 4월 29일 전국적인 가두시위를 주도하면서 총 29개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후 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요구사항의 핵심 내용은 국가가 책임을 지면서도 자율성이 보장되는 양질의 무상교육이다. 이 행진은 칠레학생연맹 스스로도 놀랐을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1만 명가량의 대학생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²⁾ 교원조합 지도부도 참여했기 때문이다. 다만 수도 산티아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반향이 없어서 전국적인 움직임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5월 12일의 시위는 실질적인 전국적인 시위라고 부를 만했다. 5만 명이상이 행진에 참여했는데, 절반가량이 산티아고 이외 지역에서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칠레학생연맹 지도부가 더욱 고무된 가운데 향후 학생운동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날이 닳쳤다.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이 한 해의 국정 우선순위와 정치적 의제를 천명하는 국회 연설을 한 5월 21일이었다. 학생시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피네라의 안이한 교육 관련 메시지에 분노한 칠레학생연맹은 열흘 후 6월 1일을 기해 교육 부문의 전국적인 파업을 촉구했다. 교육

1) 이 장은 2011년 칠레 학생시위의 전개 과정을 일자별로 추적하며 분석한 Urra Rossi(2012)를 주요 소스로 삼아, 여러 가지 자료를 보충한 것이다.

2) 참고로 칠레의 중등교육은 우리나라처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6년 단일제이다.

관련 주체들은 물론 주요 사회단체들이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야당이 이를 정부 비판의 도구로 이용하면서 학생시위는 이제 사회적·정치적 이슈로 격상되었다. 이에 놀란 교육부는 5월 30일 칠레학생연맹 지도부와 면담 자리를 만들었다.

우파의 대통령후보로 두 번이나 출마한 적이 있는 호아킨 라빈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섰지만, 칠레학생연맹 지도부의 목적은 협상이 아니었다. 보수언론의 침묵을 깨뜨리고, 요구사항을 재천명하고, 전국파업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히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뿐이다. 6월 1일의 파업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4개 공립대학의 총장이 참여하기도 했다. 6월 5일 칠레학생연맹 지도부와 교육부장관의 2차 만남이 이루어졌지만 시위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미 6월 3일부터 각 대학 대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실력행사에 돌입하고 있었고, 결국 총 17개 대학에서 수업거부나 대학건물 점거가 발생했다. 6월 6일부터는 중등학교에서도 건물을 점거하기 시작해, 6월 13일에는 138개 학교에서 수업이 중단되었고, 6월 25일 경에는 600여 개의 학교가 점거당한 상태였다.

칠레 정부는 판단착오로 적절한 대응에 실패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소위 ‘개혁 피로감’ 때문에 시위가 저절로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교육개혁 요구가 생각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쉽게 잦아들 성질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나서는, 강경론자들을 고립시키는 전술을 구사하느라 성의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그래서 학생들은 물론 일반 국민의 분노도 키웠다. 6월 16일 산티아고에서만 8만에서 10만 명, 전국적으로는 20만 명이 참가한 것으로 추산되는 시위가 벌어진 것이 그 방증이다.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사, 교수 외에도 평범한 시민이 대거 시위에 가세한 것이다. 일반 시민의 적극적 참여는 심지어 6월 23일 중고등학생이 주도한 시위에도 이어졌다. 그리고 6월 30일에 정점에 달했다. 칠레학생연맹과 교원조합이 주도한 전국 파업일이던 이날은 산티아고에서만 20만 명, 전국적으로는 최소한 40만 명이라는 기록적인 인

원이 참여하였다. 시위대는 정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를 비판했다. 6월 8일 기독교민주당 당사를 점거해서 농성을 하고, 6월 30일에는 사회당과 우파 정당인 독립민주연맹(UDI: Unión Demócrata Independiente) 사무실도 잠시 점거했다. 콘세르타시온의 양대 산맥인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당은 물론이고 우파의 양대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UDI와 피네라의 국민개혁당(RN: Renovación Nacional) 모두 시민과 학생의 비판 대상이 된 것이다.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정부는 비로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7월 5일 피네라 대통령은 40억 달러를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골자로 하는 ‘교육을 위한 국가적 대타협’(GANE: Gran Acuerdo Nacional por la Educación)³⁾ 안을 제시하고, 7월 18일에는 시위대의 요구대로 교육부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응이기는 하지만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응은 아니었다. 피네라의 안은 재정 확충만 약속했을 뿐, 칠레 교육제도를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는 언질은 없었다. 신임 교육부장관 펠리페 불네스는 법무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부처를 바꾼 인물이어서 교육 문제를 원점에서 검토할 공평무사한 인물로 보기에는 어려웠다. 대통령과 정부가 여전히 국민적 요구를 도외시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었다. 칠레학생연맹 등은 정부안을 즉각 거부했고, 여론도 이들의 편이었다. 실제로 칠레학생연맹, 전국중고등학생모임, 교원조합이 피네라가 발표한 정부안에 맞서 7월 14일 조직한 ‘교육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이름의 위원회는 각종 사회 단체, 직능 단체, 원주민 단체 등의 지지 선언이나 참여를 속속 이끌어냈다.

8월 4일의 전국파업 때부터 사태는 악화되었다. 더 이상 시위대에 끌려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는 이미 7월부터 알라메다 대로에서의 시위를 금지했다.

3) 이 단체의 약칭 ‘GANE’는 ‘이겨라’, ‘획득하라’, ‘언으라’는 뜻이다.

알라메다 대로는 산티아고 시내를 동에서 서로 가로지르는 길이며, 그 중간에 대통령 궁이 있는 구(舊)도심이 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칠레의 주요 시위나 행진의 무대였던 알라메다에서 시위를 금하겠다는 결정은 시위대에 대한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고, 8월 4일 시위 때 실제로 강경진압에 나서 수백 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가 격해져 양측의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고, 칠레대학교 학생회장이자 칠레학생연맹 지도부인 카밀라 바예호는 그날 밤 냄비시위를 촉구하여 이를 성공리에 이끌었다. 냄비시위란 칠레 현대사의 분수령마다 등장한 시위 형태로 가정주부들까지 반정부 시위에 동참한다는 상징성, 즉 전 국민이 정부에 항의를 표한다는 상징성을 지닌 시위 방식이다.

8월 21일 시위 지도부는 행진 방식의 시위 대신 산티아고에서 문화제를 열어 정부를 규탄했으며, 무려 50만 명의 인파가 운집해 평화적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8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칠레 노총(CUT: Central Universitaria de Trabajadores)이 주도한 전국파업 때는 또다시 정부와 충돌이 빚어졌고, 시위와 무관한 청년이 진압대의 유탄에 맞아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정부는 강경책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되어 피네라가 직접 나서서 정부와 시위대 주요 인사들과 연석회의를 제의했다. 2011년 거의 내내 지속된 시위 국면에서 단순 면담을 넘어서는 최초이자 유일한 만남이었다. 그러나 9월 3일의 양측 회동은 실질적으로 아무 소득이 없었다. 시위 확산과 지속적인 격렬한 충돌은 피하기 어려워 보였다.

그런데 그 전날 일어난 뜻밖의 사건이 시위를 새로운 국면으로 몰고 갔다. 칠레의 인기 MC가 포함된 방송팀이 칠레 공군의 협조를 얻어 촬영에 나섰다가 비행기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이 사건 때문에 9월 3일의 회동마저 언론과 국민의 관심사에서 멀어졌다. 또한 국민적 애도의 분위기 속에서 언제부터 시위를 재개할 것인지를 두고 학생 지도부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고, 학생과 시민 사이에도

틈이 벌어졌다. 시위 초기 정부가 고대하던 개혁 피로감, 강경파를 고립시키려던 정부의 전술이 뜻밖의 사건으로 현실이 된 것이다. 이후 10월 7일 교원조합이 주도하고, 칠레학생연맹과 중고등학생 지도부가 지지한 민간 차원의 교육 국민투표에 백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일 이외에는 학생과 시민들의 열기가 눈에 띄게 하락세로 돌아섰다. 무엇보다도 장기간의 시위로 집단유급, 장학금 취소, 수업료 환불에 따른 대학재정 악화 가능성 등 때문에 학생들은 점차 수업에 복귀하기 시작했다. 결국 12월 21일 학생시위는 공식적으로 종결되었다..

III. 칠레 교육시스템과 전 국민의 불쾌감

6개월 이상 지속된 칠레 학생시위는 시위 횟수, 참여 인원과 단체의 수, 냄비 시위 같은 상징적인 시위 방식의 재등장 등으로 볼 때 1990년 민주화 이후 가히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피네라의 지지율은 6, 7월에 이미 26퍼센트로 수직 추락했고, 연말에는 23퍼센트까지 떨어졌다. 반면 9월 11일 발표된 현실문제연구소(Centro de Estudios de la Realidad Contemporáne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칠레 국민의 약 90퍼센트가 학생들의 요구에 공감했다(재인용: Mayol, Azócar y Brega 2011, 14). 과거청산, 영국에 억류된 피노체트 송환 여부, 피노체트 사법처리 여부 등 민주화 이후의 주요 갈등 중 그 어떤 것도 칠레 정부를 이렇게 한목소리로 규탄한 예가 없었다.

칠레 교육시스템이 어떻게 이런 상황을 초래했을까? 비록 몇 차례 교육 관련법을 개정하기는 했지만 오늘날의 칠레 교육시스템의 주요 골자는 1981년에 마련되었다. 즉 피노체트 시대의 산물인 것이다. 피노체트의 주요 정책 브레인인이었던 하이메 구스만(Jaime Guzmán)의 고등교육에 대한 1981년 발언은 2011년까

지의 칠레 대학 정책의 핵심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그는 국가가 대학 교육을 직접 챙기지 않고, 대학 간 경쟁이라는 간접적 방식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대학 설립 자유화, 대학 이외의 고등교육 기관 설립 유도, 고등 교육에 대한 지원 시스템 제고, 기존 대학의 합리화 등을 대학 간 경쟁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재인용: Rezano e Inga R. 2011, 10). 이에 따라 국립대학은 30년 전이나 2011년이나 12개로 묶여 있었고, 오직 사립대학 설립만 허용되었다. 대학생 수를 보더라도 1990년 24만 명에서 2010년 940,164명으로 늘어났으니, 결국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학이 대학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졌다는 뜻이다. 게다가 대학 설립 자유화로 우후죽순처럼 생긴 사립대학들이 장삿속만 밝히는 경우가 많아서 대학생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우석균 2011, 62). 국가가 교육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자, 대학은 이를 학생 개개인에게 떠넘긴 셈이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도 비슷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2011년 학생시위 때 중·고등학생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는 탈기초단체화(desmunicipalización)이다. 현재의 칠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시스템은 지방자치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칠레는 15개 주, 54개 광역 행정구역, 346개 기초단체 행정구역으로 나뉜다. 그리고 ‘무니시피오’(municipio) 혹은 ‘무니시팔리다드’(municipalidad)로도 부르는 이 346개 기초단체가 각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의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앞서 언급한 대학교육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가는 간접적인 책임만 질 뿐이다. 따라서 2011년 학생운동이 요구한 탈기초단체화는 지나친 교육 자치를 지양하고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라는 요구였다.

전문성, 재정, 효율성 등에서 기초단체가 교육을 책임지기에는 확실히 무리라는 것이 각종 연구와 통계를 통해서 입증되었다. 가령, 중등교육의 경우 공립 학교, 보조금을 받는 학교(liceo subvencionado), 사립학교 등으로 나뉘는데 이는

상류층 자제는 사립학교, 중산층 자제는 보조금을 받는 학교, 서민 자제는 공립 학교로 물리는 결과를 낳았다. 사회 계층 간 교육 수혜의 불평등은 이미 2004년 OECD보고서에도 지적된 바 있으며, 이런 점을 들어 가르시아우이도브로는 칠레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사회 계층 간 차별이라고 지적한다(García-Huidobro S. 2011). 모든 기초단체가 교육재정을 충분히 확보하기도 힘들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전문가를 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가능한 한 공립학교를 피하고 교육비가 많이 드는 사립학교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등교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기초단체에 떠넘긴 교육 책임이 고스란히 가계에 전이되고 있다.

마운(Mayol) 등의 2011년 연구는 1981년 정립된 칠레 교육시스템이 구스만이 천명한 의도와는 얼마나 동떨어진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 연구의 일부분을 요약하자면, 우선 칠레 교육 모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민영화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에 의한 교육의 질 향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세계경제포럼의 2011년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142개 조사대상 국가에서 칠레의 국가 경쟁력은 31위이지만, 교육 경쟁력은 최하위권인 123위이다. 경쟁력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 부담을 가계가 짊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2011년 9월의 OECD보고서에 따르면, 고등교육의 경우 1인당 국내총생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칠레 가정의 교육비 부담 비율은 22.7퍼센트에 달해 OECD 국가 중 1위이다. 이는 마운 등이 알기로 교육 민영화가 가장 높은 수준인 한국 가계의 교육 부담률 12.8퍼센트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충격적인 수치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결과는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칠레 정부는 2006년 국가신용보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국가의 보증 하에 금융권이 학생들에게 학비를 대출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2009년 국가가 지불해야 했던 보증

금이 국가 보조를 받는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전체 장학금 액수를 상회한 것이다. 즉, 교육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국가 부담이 다시 늘어났으니 지난 30년 동안 금과옥조로 여기던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는 괴상한 교육 체제라는 것이 마을 등의 지적이다. 이런 왜곡 현상은 학업성취도 면에서도 발견된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에서 비싼 교육비를 부담하는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고, 그렇지 못한 공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학교를 다니는 중산층 자제들은 교육비 부담에 합당한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업성취도 면에서도 부유층과 서민층의 중간이 아니라 서민층에 가깝다. 따라서 교육비 부담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중산층 자제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 현상, 즉 시장논리에 위배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셈이다(Mayol, Azócar y Brega 2011, 2-13).

소득 재분배의 차원에서도 칠레 교육시스템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과정에서 사립학교를 다닌 학생들이 전통적인 명문대학, 즉 여전히 어느 정도의 국가 보조를 받는 대학에 진학하는 확률이 훨씬 높아서, 고등교육의 경우 서민층 자제들이 사립학교에서 비싸고 질 나쁜 교육을 받고, 부유층 자제들은 값싸고 상대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는다는 점이다(García-Huidobro S. 2011).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칠레 교육시스템은 난맥상에 처해 있다. 서민층 자녀는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봉쇄당하고 있고, 중산층 자녀는 높은 교육비를 부담하고도 그에 합당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부유층은 낮은 교육 경쟁력을 한탄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몇 년 동안은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칠레 교육시스템에 대해 ‘전 국민을 관통하는 불쾌감’(malestar transversal)이 존재하고(García-Huidobro S. 2011), 교육개혁 요구가 ‘전 국민을 관통하는 지지’(respaldo transversal)를 받게 된 것이다(Núñez 2012, 63).

VI. 사회의 대반격

2011년의 학생시위는 과연 어떤 성과를 얻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가령, 학생들이 패배했다는 견해도 있다(Abarca y Silva 2011). 칠레 교육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장학금 수혜자 확대 정도의 결과만을 얻었을 뿐이니, 그런 평가를 내릴 만도 하다. 칠레대학 학생회장이자 칠레가톨릭대학 학생회장이었던 잭슨(Giorgio Jackson)과 함께 칠레 학생연맹을 이끌었던 카밀라 바예호가 2011년 12월 5일과 6일에 걸쳐 거행된 칠레대학 학생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것도 오랜 투쟁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실망감이 일부 반영된 것이다.

이에 반해, 무승부라는 평가도 있다. 가령, 세르히오 그레스 토소는 2011년의 학생시위가 정부로부터 직접 얻은 것은 별로 없어도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파장을 야기해 교육 문제가 국가적인 우선 과제임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교육을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한 정부와 무승부를 거둔 셈이라고 평가한다(Grez Toso 2012, 6). 이는 학생시위로, 2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모델, 독재 시대의 공포체제에 대한 기억, 사회적 요구의 표출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벽, 소수의 경제적 기득권자와 권력이 확립한 미디어 독재 등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지지부진하던 사회운동의 새아침이 밝았다는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내린 평가이자(Grez Toso 2011, 10), 학생시위가 다른 사회 세력과 연대하여 제헌의회 구성까지 이어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Grez Toso 2012) 기대 반 우려 반에서 나온 평가이기도 하다.

2011년 학생시위가 사회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주장은 논자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견해일 수도 있다. 이를테면, 다니엘 누네스는 칠레의 경제적 발전의 이면에는 이에 환멸을 느낀 이들이 존재했고, 이 환멸이 점점 사회적

불쾌감을 고조시켰고, 2006년 중고등학생들의 교육개혁 요구 시위(일명, 펠곤혁명)을 기점으로 사회적 갈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사이클이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가 2011년의 학생시위라고 말한다(Núñez 2012, 62-63). 2006년의 펠곤혁명은 칠레 교육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지만, 2011년의 주역이었던 카밀라 바예호는 구조적 문제까지 짚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2011년의 시위에 많은 교훈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Vallejo 2012b, 14-15). 누네스가 언급하는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은 2011년 학생시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칠레 각처에서 2007년부터 일어난 반(反)신자유주의적 성격의 일련의 사회적 저항을 말한다(Núñez 2012, 63). 따라서 누네스는 2011년 학생시위를 사회운동의 기폭제로 보는 그레스 토소와 달리 학생시위를 각종 사회운동의 결과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 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점은 사회가 들끓기 시작했고, 국민의 불만이 각종 사회운동으로 결집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 끝끝이 공히 신자유주의를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2011년의 학생시위는 새로운 사회적 주체가 탄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예전의 칠레 학생운동과 비교해보면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칠레 현대사에서 대학생이 사회변혁의 주체로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는 대학 근대화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건 1968년의 대학개혁 시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대학생들은 주요 정당과 긴밀한 관계 하에 시위를 전개했고, 각각 지지하는 정당의 강령을 대학개혁에 반영시키려고 하면서 학생 지휘부 간에 내분을 겪기도 했다(Tomás y Reca 1971, 381). 그 후, 1980년대에서 민주화 초기까지의 칠레 젊은이들은 권위주의/민주주의의 이분법 구도 하에서 행동방침을 결정했다(Fernández Ramil 2011, 25). 1980년대에는 반독재, 1990년대 초기에는 군부독재 정권의 반인륜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과거청산 문제를 이슈로 한 대단히 정

치적인 색채를 띤 움직임이었다.

반면, 2011년의 학생시위는 전통적인 의미의 정치적 시위가 결코 아니었다. 전 국민적 인물로 떠오른 카밀라 바예호의 행보를 보면 지금 칠레에서 정치 영역 밖에서 새로운 사회적 주체가 탄생하고 있음을 잘 알 수 있다. 1988년생인 바예호는 칠레대학 지리학과 재학 중 칠레대학 역사상 두 번째 여성 학생회장으로 당선되고, 이 자격으로 칠레학생연맹 지도부로 활동하게 된다. 그런데 바예호는 공산당원이며, 부모 역시 공산당 당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그래서 바예호를 체 게바라나 파시오나리아와⁴⁾ 비교하는 경우도 많았다(Vallejo 2012a). 심지어 『월스트리트저널』은 바예호를 “빨간 기저귀를 찬 아기”라고 비판하는 칼럼을 신기도 했다(O'Grady, 2012). 칠레 정부가 초기에 학생시위를 정치적, 이념적 투쟁으로 오판하고, 강경파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수립한 데에는 바예호의 이런 이력도 일정 부분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칠레 정부도 『월스트리트저널』도 틀렸다. 비록 바예호가 공산당 당원이고 이제는 칠레에서 네 번째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꼽히게 되었지만, 정치권이 교육개혁을 이끌고 갈 주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시위대는 콘세르타시온의 두 주요 정당인 기독교민주당과 사회당, 그리고 우파의 두 주요 정당인 RN과 UDI 당사를 실제로 혹은 상징적으로 점거하여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표명했다. 공산당에 대한 바예호의 태도도 이런 비판의식에서 그리 멀지 않다. 공산당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공산당이 시대에 맞는 강령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주문하기 때문이다(Vallejo 2012b, 18-19).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공산당이 아니라 새로운 주

4) 파시오나리아(Pasionaria): 제2공화국과 내전에서 스페인 공산당을 이끈 전설적인 공산주의자 여성인 돌로레스 이바루리(Dolores Ibárruri, 1895~1989)의 별명.

체들이 학생운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 대한 이런 불신 때문에 바예호는 제헌의회 주장도 경계한다. 칠레처럼 사회운동이 성숙하지 못한 곳에서 제헌의회가 구성되면 정치인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줄지도 모른다는 이유에서이다(Vallejo 2012b, 17). 바예호의 이런 시각은 칠레 젊은 층이 공감하는 것이다. 사실 이들은 정치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은 지 오래였다. 2004년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젊은이들 중 85퍼센트가 지지 정당이 없었다(Thezá y Muñoz 2005, 113). 피네라가 승리한 대선은 무려 400만 명이 기권하거나 백지투표 혹은 무효표를 던져서, 1988년 국민투표 이래 가장 참여도가 낮은 선거로 기록되었는데 대다수가 젊은 층이었다(Fernández Ramil 2011, 15. 25).

‘스릴러 퍼포먼스’, ‘레이디 가가 퍼포먼스’, ‘키스 퍼포먼스’ 등이 시위 방식으로 등장한 것도 새로운 사회적 주체의 탄생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스릴러 퍼포먼스는 2011년 6월 23일 시위에 벌어졌다. 3,000명가량의 학생들이 대통령 궁 앞에 모여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 「스릴러」를 재현하며, 좀비가 된 칠레 공교육의 현주소를 풍자했다. 레이디 가가 퍼포먼스는 7월 13일 산티아고 중앙광장에서 벌어졌으며, 말 그대로 레이디 가가의 노래 「유다」의 안무에 맞춰 학생들이 춤을 춘 퍼포먼스이다. 발표 당시 신성모독 논란을 빚기도 한 이 곡을 선정한 것은 교육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정부의 완강함을 풍자한다고 볼 수 있다. 키스 퍼포먼스는 10월 19일 산티아고 중앙광장에서 4,000명이 참여하여 벌인 퍼포먼스로 연인들끼리 1,800초(30분) 동안 계속 키스를 나누었다. ‘1800’이란 숫자는 칠레에서 공교육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1,800필리언 달러(18억 달러)를 상징한다(서러연 2011). 학생들은 정부를 규탄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위를 축제로 승화시키는 탈정치적인 행보를 부단히 시도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요구가 과거

와 같은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개방적이면서도 전 국민적인 요구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2011년 칠레 학생시위는 사회운동의 새아침이나 새로운 사회적 주체의 탄생으로 규정하고 말 일이 아니다. 이는 군부독재에 저항 하느라 도외시되고, 소위 ‘칠레의 기적’에 취해 뒷전에 밀려나 있던 사회 영역의 대반격이다. 사회학자 토마스 물리안은 칠레가 이미 콘세르타시온 정권의 첫 번째 대통령인 아일윈(Patricio Aylwin, 1990~1994년 집권) 때부터 ‘역동성 없는 사회’였다고 말한다(Moulian 2011a, 2011b). 칠레 특유의 독재 이후(posdictadura) 시대의 풍경이었다. 다시 말해서, 군부독재가 종식되어 깨어 있는 의식을 가지고 저항해야 할 주적이 사라진 시대, ‘칠레의 기적’에 취해 민주화를 성취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시장으로, 즉 신자유주의 체제로 완벽하게 재편된 것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 마을 등의 말마따나 경제발전을 이룩한 국가가 모든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주리라는 국가 메시아주의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낳은 시대(Mayol y Azócar 2012, 3) 역동성 없는 사회를 낳은 것이다. 그런데 칠레 학생운동이 그리고 이 운동에 공감을 표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있으며, 역동성 없는 사회를 수월하게 통제해온 정치 영역에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영역에 대한 반격이다. 콘세르타시온 정권이 네 번 연이어 집권하는 동안 그 어느 대통령도 피노체트 시대에 도입된 신자유주의 모델에 메스를 들이대지 못했고, 일각에서는 피네라 정권을 콘세르타시온 제5기 정권이라고 부를 정도로(Fernández Ramil 2011, 24) 완벽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칠레 교육개혁 문제나 이와 연동된 사회운동을 신자유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립이라고 보는 이유도 그래서이다(Burbach 2011; Vallejo 2012a). 물론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성취했으나 칠레 사회가 전반적으로 소위

저강도 민주주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학생운동이 넘어서려 하고 있으며, 그 주적은 신자유주의라는 뜻이다. 그래서 칠레 학생운동은 경제와 정치에서 소외된 사회의 반격인 것이다.

V. 잃어버린 30년

칠레 학생운동은 스페인의 ‘분노하라’ 혹은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등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저항이지만, 바예호는 칠레 학생시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카밀라 바예호는 BBC나 칠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월스트리트의 시위는 분노한 사람들의 즉흥적인 행동에 가까운 반면, 칠레 학생운동은 오랫동안 칠레에 존재한 불평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그녀의 발언이 그저 자부심의 표출 정도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지구 상에서 최초로, 미국보다도 먼저 신자유주의 실험장이 된 라틴아메리카, 그중에서도 가장 성공해서 신자유주의 모범 국가로 꼽히던 칠레야말로 신자유주의 신화의 모순이 가장 축적된 곳이고, 그래서 자신은 신자유주의 신화의 허구성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다. 더구나 칠레는 밀턴 프리드먼이 피노체트에게 신자유주의 모델을 받아들일 것을 직접 설득한 나라였으니 말이다(우석균 2011, 63).

바예호는 실제로 2011년 10월 BBC와의 인터뷰에서 칠레의 학생시위는 월스트리트의 시위처럼 분노한 사람들이 일으킨 즉흥적인 시위가 아니라, 칠레에

서 진행되어온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수반된 오랜 과정의 산물이라고 말했다(Vallejo 2011).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란 신자유주의 체제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 체제는 밀턴 프리드먼의 권고에 의해 쇼크요법이라고 일컬어지는 충격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칠레에 도입되었다. 1975년 3월 프리드먼이 칠레를 방문해서 피노체트에게 쇼크요법을 강력히 권한 일은 유명한 일화이다(나오미 클라인 2007, 108-109). 이때 프리드먼은 칠레 교육정책의 방향성도 사실상 제시했다. 3월 26일 ‘칠레와 경제적 이룩’이라는 강연을 할 때, 사회자는 프리드먼을 플라톤이 위정자들에게 요구한 수준의 지식을 갖춘 인물로 소개하였다. 그런데 프리드먼은 강연을 시작하자마자 플라톤에게 비유되는 것이 좀 불편하다는 말을 한다.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플라톤이 생각하는 철학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이유에서이다(Cárcamo-Huechante 2001, 11-12). 프리드먼이 말하는 자유로운 사회는 물론 경제 행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신자유주의 사회이고, 교육도 자유경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사회이다. 1981년 피노체트가 구축한 교육정책이 프리드먼의 암시가 현실이 된 사건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라틴아메리카의 1980년대를 흔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른다. 라틴아메리카가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겪으며 경제가 정체 혹은 퇴보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칠레 역시 1980년대 초반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부터 그 위기를 벗어나 라틴아메리카에서 거의 독보적인 경제발전 행보를 이어갔다. 그래서 칠레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반면 1980년대 내내 어려움을 겪었던 다른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좌파 정부가 속속 들어섰다. 바예호는 오히려 이런 점을 부러워한다. 칠레 학생운동이나 사회운동이 정부와 대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이유가 피네라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콘세르타시온 정부도 명목상으로 중도좌파일 뿐 진보적이지도 못하고 진정한 의미의 사회민주주의와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1980년도에 피

노체트가 만든 헌법 이래 근 30년 동안 진정한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개헌 논의가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한다. 피노체트 시대의 교육정책이 1981년 구축되었으니, 교육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킨 칠레 학생운동은 꼭 30년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그렇다면 지난 30년 동안 칠레는 무엇을 경험했을까? 칠레의 기적일까 아니면 공교육을 실종시키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일까? 필자가 보기에 지난 30년은 칠레의 기적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으로 규정해야 할 세월이다.

참고문헌

- 나오미 클라인(2007), 『쇼크 독트린』, 김소희 옮김, 살림.
- 서라연 (2011), 『칠레: 교육개혁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그린비 인문플랫폼 서라연 블로그,
<http://blog.igreenbee.net/snuilas?p=2>, 2011년 11월 13일 검색.
- 세르히오 그레스 토소(2011), 『칠레 사회운동의 새 아침』, 우석균 옮김, 『트랜스라틴』 17호, 9월호,
<http://translatin.snu.ac.kr/translatin/1109/pdf/Trans11091703.pdf>, pp. 10-12.
- 우석균 (2010), 『칠레 대신: 칠레관 '명백한 운명', 그리고 더 명백해진 칠레의 운명』,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편, 『2010 라틴아메리카 —경제위기와 지속 가능한 발전』, 도서출판 두술, 2010, pp. 65-75.
- _____(2011), 『신자유주의, 그 신화의 몰골』, 『한겨레21』, 886호, 11월 21일, pp. 62-63.
- Abarca, Pedro y Luis Silva(2011), “La lucha estudiantil ha sido derrotada: ¡Viva la lucha estudiantil!” , *La Chispa*, 22 de diciembre,
<http://www.lachispa.cl/2011/12/22/la-lucha-estudiantil-ha-sido-derrotada-%C2%A1viva-la-lucha-estudiantil-parte-1/>, 2012년 2월 13일 검색.
- Burbach, Roger(2011), “Chile se está convirtiendo en una parte del movimiento mundial de la juventud que está transformando el mundo poco a poco”,
<http://todosconchile.blogspot.com/2011/08/roger-burbach-chile-se-esta.html>, 2011년 11월 15일 검색.
- Cárcamo-Huechante, Luis E.(2001), “El discurso de Friedman: mercado, universidad y ajuste cultural en Chile”, en Nelly Richard(ed.)(2008), *Debates críticos en América Latina*, Vol. 2, Santiago: Editorial ARCIS/Editorial Cuarto Propio/Revista de Crítica Cultural, pp. 11-26.
- Donayre S., Rezno y P. Anghela Inga R.(2011), “Conflicto estudiantil en Chile: la educación en debate”, *Revista Andina de Estudios Políticos*, No. 7, pp. 3-32.
- Fernández Ramil, María de los Ángeles(2011), “Entre la emergencia oficial y el desconcierto opositor: Chile en el primer año de gobierno de Sebastián Piñera”, *Nueva Sociedad*, No. 233, mayo-junio, pp. 14-25.
- García-Huidobro S., Juan Eduardo(2011), “Movilizaciones estudiantiles, un intento de interpretación”, *Cuaderno de Educación*, No. 35,
http://mailing.uahurtado.cl/cuaderno_educacion_35/actualidad.html, 2012년 5월 12일 검색.
- Grez Toso, Sergio(2012), “Chile 2012: el movimiento estudiantil en la encrucijada”, *Le Monde Diplomatique*, enero-febrero, pp. 6-7.

- Mayol, Alberto(2011), “Sociólogo Alberto Mayol: Un nuevo Chile está naciendo”, (entrevista), *Punto Final*, No. 749,
<http://www.puntofinal.cl/749/mayol749.php>, 2012년 2월 13일 검색.
- Mayol, Alberto y Carla Azócar(2012), “Politización del malestar, movilización social y transformación ideológica: el caso “Chile 2011”, *Polis*, No. 30, pp. 1-19.
- Mayol, Alberto, Carla Azócar y Carla Brega(2011), “El clivaje público/privado: Horizonte último del impacto del movimiento estudiantil en Chile 2011”, *Kiutral*, No.3, pp. 1-27,
<http://www.albertomayol.cl/?p=74>, 2012년 4월 1일 검색.
- Moulian, Tomás(2011a), “La vuelta de Moulian”, (entrevista con Diego Zúñiga), *Qué Pasa*, 1 de septiembre,
<http://www.quepasa.cl/articulo/politica/2011/09/19-6491-9-la-vuelta-de-moulian.shtml>,
 2012년 2월 16일 검색.
- _____(2011b), “Los estudiantes fueron capaces de mover a una sociedad inmóvil”, (entrevista con Patricio López), 19 de septiembre,
http://www.elsoldeiquique.cl/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2167:to-mas-moulian-los-estudiantes-fueron-capaces-de-mover-a-una-sociedad-inmovil&catid=67:titulares&Itemid=124, 2012년 2월 16일 검색.
- Núñez Daniel(2012), “Proyecciones políticas del movimiento social por la educación en Chile”, *OSAL*, Año XIII, No. 31, pp. 61-70.
- O'Grady, Mary Anastasia(2012), “Chile's Cautionary Lesson for Americans”, *Wall Street Journal*, April 29,
<http://online.wsj.com/article/SB10001424052702304723304577370242286427820.html>,
 2012년 5월 14일 검색.
- Thezà, Marcel y Lisandra Muñoz(2005), “El movimiento estudiantil universitario: nuevas clásicas formas de organización”, en Paulo Hidalgo(ed.) *Política y sociedad en Chile: antiguas y nuevas caras*, Santiago: Catalonia, pp. 107-121.
- Urra Rossi, Juan(2012), “La movilización estudiantil chilena en 2011: Una cronología”, *OSAL*, Año XIII, No. 31, pp. 23-37.
- Vallejo, Camila(2011), “Queremos proyectar políticamente este movimiento”, (entrevista con BBC Mundo),
<http://www.elmostrador.cl/noticias/pais/2011/10/18/camila-vallejo-entendemos-la-lucha-de-los-indignados-pero-en-chile-pasamos-la-etapa-del-descontento/>, 2012년 2월 16일 검색.
- Vallejo, Camila(2012a), “Líder del movimiento estudiantil de Chile”, (entrevista con Rocío

Montes Rojas), *El País*, 15 de enero,

http://elpais.com/diario/2012/01/15/domingo/1326603158_850215.html, 2012년 2월 13일 검색.

_____(2012b), “Somos la generación que perdió el miedo”, (entrevista con Hernán Ouviña), *OSAL*, Año XIII, No. 31, pp. 13-20.

Vasconi, Tomás e Inés Reca(1971), “Movimiento estudiantil y crisis en la universidad de Chile”, en VV. AA., *Chile hoy*, 3a ed., Santiago: Siglo XXI, pp. 345-384.

Wikipedia, “Movilización estudiantil en Chile de 2011-2012”,

http://es.wikipedia.org/wiki/Movilizaci%C3%B3n_estudiantil_en_Chile_de_2011-2012, 2012년 5월 7일 검색.